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원사 동향

공공부문

2019.08



Index

1. 국방기술품질원	1
2. 부산항만공사	2
3. 여수광양항만공사	2
4. 인천국제공항공사	3
5. 한국가스공사	4
6. 한국국토정보공사	4
7. 한국남부발전	5
8. 한국서부발전(주)	6
9. 한국수력원자력(주)	7
10. 한국중부발전(주)	8
11. 한국지역난방공사	8
12. 한전KPS(주)	9

1.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

국방기술품질원과 울산시는 23일 오후 울산산학융합원에서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울산국방벤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하며, 협약기업에 대한 국방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는 조선, 자동차, 에너지 등 국내 최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신 산업분야로 에너지·3D 프린팅·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8만 4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곳으로 미래 방산기술 기반구축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국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광역시의 중소기업이 국방 기술개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울산지역 국방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코나스넷,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 2019/08/23

링크: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3815>

-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감항인증연구센터 신설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산수출지원센터와 감항인증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팀 단위 전담 조직을 확대 및 격상한 것이다. 기존 방산수출지원팀은 방산수출지원센터로, 감항인증팀은 감항인증연구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방산수출지원센터는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수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수출 대상 국가의 시장분석과 현지조사,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돕는다. 해외 정보 수입과 진출 전략 연구를 위해 수출 지원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는 게 국방기술품질원의 계획이다. 올해는 1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체가 수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출처: 한국경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감항인증연구센터 신설’, 2019/08/26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2683357>

2.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차지”

부산항만공사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발표한 '항만연결성 지수(PLSCI)'에서 부산항이 항만 및 해운 연계성 측면에서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들 중 3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부산항은 PLSCI 부문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2006년도 부산항의 PLSCI는 77.38p에 불과했지만 2014년도에는 101.46p를 기록했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수치가 증가해 올해엔 114.45p를 달성, 3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입화물 증가로 항만·해운 연계성이 크게 발달한 중국의 주요 항만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부산항과 싱가포르항 또한 환적 물동량의 꾸준한 증가세가 크게 작용하여 높은 항만연결성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출처: 베타뉴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차지’”, 2019/09/01

링크: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1039771.html>

3.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제 2회 해운 新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1일에 밝혔다.

총 50여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경진을 거쳐 4팀이 수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참가자는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해 해운항만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을 선보였다.

최우수상 수상작(해양수산부 장관상)은 김선확 주임의 '소형화주-포워더 매칭 플랫폼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다. 김 주임은 아이디어를 통해 소형화주와 포워더의 물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비딩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존 플랫폼의 한계점인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출처: 뉴스 1,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08/31

링크: <http://news1.kr/articles/?3708724>

4.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 스마트 에너지 공항으로 우뚝 선다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시행하며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 이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내 수소차 충전소 도입을 골자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소차 충전소를 올해 중 설치 완료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업무차량 대부분을 수소차로 교체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쯤 수소버스 상용차 개량판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셔틀버스 등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과 인천공항 내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40MW 연료전지 설치사업도 논의 중이다.

-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에 태양광 발전소 10MW 구축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약 15MW 가량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당시 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만 10MW를 구축한다. 또 1.3MW의 수소 연료전기와 함께 지열 발전도 2MW 정도를 구축한다.

대량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활용한다. 단기주차장과 주차빌딩 옥상에 케노피 형태의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비와 햇빛을 막고 신재생 발전까지 하는 다목적 설비를 건설한다.

출처: 전기신문, '인천국제공항, 스마트 에너지 공항으로 우뚝 선다', 2019/08/06

링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4979865184027002>

- 올 여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654만 명...“역대 최고 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에 하루 평균 21만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성수기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올여름 성수기 때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 여객은 654만1421명이며 하루 평균 여객은 21만101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하루 이용객 23만4071명으로, 개항 이래 역대 최다기록을 세운 지난달 28일 22만6496명을 일주일 만에 다시 경신했다. 성수기 기간 중 지난달 28일 출국자가 11만8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국자는 지난 4일 12만2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에 464만7384명이 제1터미널을, 189만4037명이 제2터미널을 이용해 공항 혼잡을 줄였다.

출처: 세계일보, “올 여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654만 명...‘역대 최고 기록’”, 2019/08/21

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0510832?OutUrl=naver>

5.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S&P 장기 신용등급 AA 획득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S&P)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 평가에서 기존 'AA-'보다 1단계 오른 'AA'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등급과 함께 정부 지원 가능성도 기존 'Extremely High'에서 'Almost Certain(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S&P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공적 역할 확대와 정부의 특별 지원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매일일보, '한국가스공사, S&P 장기 신용등급 AA 획득', 2019/08/30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4255>

6.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내 최초 '장애인 취업패키지' 도입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LX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LX 본사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 교육,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LX는 국내 최초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인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를 통해 실질적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훈련받GO, 자격따GO, 일자리 찾GO'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를 통해 자격증취득, 직무교육, 현장학습 등 맞춤형 훈련을 시행하고 수요자를 정식 채용하는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다.

출처: UPI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내 최초 '장애인 취업패키지' 도입", 2019/08/27

링크: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1099505796>

7. 한국남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주민참여 태양광 2단계 준공

한국남부발전(주)이 삼척발전본부에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2.6MW) 준공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1단계(2MW) 준공에 이어 2단계 태양광설비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태양광 건설비용의 일부를 채권 매입을 통해 투자를 하고, 고정적인 이자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신사업 선도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채권형 주민참여 1단계 태양광(2.0MW) 설비를 준공했다. 후속모델로 2단계 사업을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10%인 3.5억원을 주민 채권으로 발행하여 지역주민에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통해 총 8MW급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3단계(3.4MW)까지 준공시 1~3단계 참여 지역주민들은 3년간 최대 3.6억원(이자율 6%)의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업코리아, ‘한국남부발전, 주민참여 태양광 2단계 준공’, 2019/08/13

링크: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13410#07Pk>

- 한국남부발전,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시스템 전환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스마트발전소 구현과 미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Industry4.0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국내 최초 스마트발전소 구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기존 하드디스크 기반(ECC 6.0)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부터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S/4 HANA)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모리 기반의 새 ERP시스템은 속도와 데이터 분석 면이 강화돼 신속한 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은 △ 사내 DB 및 웹서비스 관리 서버컴퓨터에 개방형 IT 자원 활용, △ 2020년 중 핵심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통합 등 IT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출처: 보안뉴스, “한국남부발전,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시스템 전환 추진”, 2019/08/30

링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599&kind=>

8.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서부발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국서부발전은 서부발전 내 모든 사업장에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45001 인증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안전보건인증이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부응하며 △작업장 위해요소 개선 △안전 경영체계 구축 △원청으로서의 책임강화 △안전 인식·문화개선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ISO45001 역시 중점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출처: 매일일보, "한국서부발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9/08/12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29488>

- 한국서부발전, 4차산업혁명 '스마트기업 리더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 '스마트기업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4차산업 기술혁신 로드맵(I-WP 4.0)'을 수립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부발전은 이를 통해 발전기술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발전 데이터 개방과 설비현장 테스트 베드 제공 등 산업 생태계 육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전 사업장에 LTE 망을 구축,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점검기기를 통해 발전설비를 점검했다. 또한 고소·사각설비에는 자율비행 드론을 띄우고, 해수 취수구 등에는 수중점검 로봇을 투입해 점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개발한 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발전소를 실증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VR을 이용한 발전설비 가상훈련시스템을 개발해 서울대 엔지니어링센터(EDRC)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4차산업 분야의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한국서부발전, 4차산업혁명 '스마트기업 리더상' 수상", 2019/08/22

링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2202109958027006&ref=naver

9.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획득

27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26일(미국시간) 신형경수로 APR1400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설계인증(DC, Design Certification)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APR1400 원전은 국내 신고리3·4·5·6호기, 신한울1·2호기가 운영 및 건설중이며 UAE에 수출됐던 원전 노형으로 지난해 9월 표준설계승인서(SDA, Standard Design Approval)를 취득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법제화과정을 거쳐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등재됐다.

이번 노형 세계 최초 NRC 설계인증 취득은 APR1400 원전을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APR1400 원전은 이번 인증 취득과 더불어 지난 2017년 10월 EUR(유럽 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양대 인증을 모두 취득해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출처: 프레시안,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획득”, 2019/08/27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464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한국수력원자력, 1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 제4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며 1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전력 생산 설비 개선으로 고장 건수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예천양수발전소 기술팀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8개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금상 1개, 은상 1개 및 동상 6개를 수상했다. 이는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품질과 안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양수 발전 운영 경험과 관련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높은 품질 수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출처: nsp통신, ‘한국수력원자력, 1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2019/08/30

링크: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0362>

10. 한국중부발전(주)

- 한국중부발전, 국내 최초 시뮬레이터 연계형 VR교육시스템 기술 획득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5월 발전기 시뮬레이터 연계 및 발전설비분해정비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5종을 개발하고 중소 협력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발전기 시뮬레이터 교육은 이론 및 단순 화면조작에 국한되고 발전설비 분해정비 교육은 소음, 안전사고, 교육과정 부재로 제한적 교육 시행만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 발전사 최초로 개발한 시뮬레이터 연계형 VR 교육시스템을 통해 기존 운전실 시뮬레이터에 가상현실 및 플랜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개발해 조작한 가상의 설비 현장으로 즉각 이동이 가능하고, 문제원인 분석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기 조작 인식을 위한 지능형 화면인식 솔루션도 같이 개발해 (주)포미트와 공동 특허 출원중이다. (주)포미트는 본 사업을 통해 자사의 시뮬레이터 연계 전문 기술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였고 국내·외 전력사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신규사업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 투데이, '한국중부발전, 국내 최초 시뮬레이터 연계형 VR교육시스템 기술 획득', 2019/08/14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14010008006>

11.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서 '스마트 공공기관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 공공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산업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상을 수상해 4차 산업혁명을 추진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공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굴·적용·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New KDHC 4.0 Plan)를 구축·이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지역난방 공급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수송부문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공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점검자의 출입없이 인터넷 기기를 통해 맨홀 내 온도, 압력, 침수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소농도, 출입이력 관리를 하는 맨홀 진단 시스템 구축으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점검원의 안전까지 고려한 지역난방 열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한국지역난방공사,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서 '스마트 공공기관상'", 2019/08/22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9766622589944&mediaCodeNo=257&OutLnkChk=Y>

12. 한전KPS(주)

- 한전KPS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한전KPS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상남도 거제시가 공동주최한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 금상(2팀)과 동상(1팀)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KPS는 여수사업소 ‘Jump분임조’와 태안사업처 ‘늘품분임조’가 현장개선편야에 참가해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며, 한울1사업처 ‘비추미분임조’가 안전품질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여수사업소 ‘Jump분임조’는 ‘발전 순환수 공급 공정 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KPS 관계자는 “한전KPS의 완벽한 정비품질 체계 구축과 품질혁신을 통해 이번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고객설비에 대한 완벽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KPS’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프레시안, “한전KPS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2019/08/30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19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